

**The Gospel of Mark**

Sermon 10: Sermon Notes

Title: "Lord of the Sabbath"

Scripture: Mark 2:23-28

Date preached: October 30th 2022

**Scripture: Mark 2:23-28**

**23 Now it happened that He went through the grainfields on the Sabbath; and as they went His disciples began to pluck the heads of grain. 24 And the Pharisees said to Him, "Look, why do they do what is not lawful on the Sabbath?"**

**25 But He said to them,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in need and hungry, he and those with him: 26 how he went into the house of God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and ate the showbread, which is not lawful to eat except for the priests, and also gave some to those who were with him?"**

**27 And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28 Therefore the Son of Man is also Lord of the Sabbath."**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24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2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26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28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Review**

Last time I spoke a little about the structure of Mark's gospel. I explained how, inspired by the Holy Spirit he had grouped together five stories of Jesus facing hostility or "push back" from the Jewish authorities. These five narratives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controversy stories." Of course these stories are not the full extent of the opposition the Lord Jesus faced. He clashed with the Jewish authorities on no fewer than 13 occasions in Mark's gospel. But this deliberate and purposeful grouping of five stories show how the Lord Jesus was first challenged and ultimately rejected by the Jewish leaders. Last time we looked at the third controversy story. It was the issue over fasting.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last study.

The Lord Jesus was approached by some disciples of both the Pharisees and John the baptist. This may strike us as an odd pairing. But often legalistic tendencies can be seen across people with very different ideological views.

They wanted to know why Jesus' disciples did not fast as they did. We don't know how frequently John's disciples fasted. Most likely it was a common practice amongst them. We do know that the Pharisees fasted twice per week.

Fasting may be defined as abstaining from food or drink in order to focus on prayer and seeking God's will. Or to say it more neatly, fasting is denying the flesh in order to strengthen the spirit. As I said last time fasting is mentioned around 70 times in the bible. This means it is an important

spiritual discipline. It is one that we can use as individuals in order to seek after, or draw nearer to God and better determine His will.

In the Old testament fasting could be both private and public. Just like today people could do it privately in order to draw closer to God. There were also times when a national (public) fast was called for. If for example the nation was threatened by an external enemy or had drifted away from God the priests may call on the people to fast. However in terms of regular public fasting God commanded all the people to fast on only one occasion in the year. This was on the Day of Atonement (Yom Kippur). This was the most solemn holy day of all the Israelite feasts and festivals. It was the day in which the High Priest would perform elaborate rituals to atone for the sins of the people. Today, Jews traditionally observe this holy day with a 25-hour period of fasting and intensive prayer.

The Lord Jesus of course would have observed the fasting associated with the Day of Atonement. This then was not the type of fasting being referred to here. What had happened over time was that the Pharisees had developed a practice of fasting twice a week. This was not prescribed in scripture but was one of their many man-made traditions. Sadly, this was not done in order to draw closer to God. Rather it was done to demonstrate to observers how pious and righteous they were. They wanted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themselves. This is a long way from the real purpose of fasting.

In order to answer their question Jesus asks them to consider a wedding. Jewish weddings as we have spoken about before were lengthy times of feasting and celebration. They were certainly not a time for fasting. So Jesus is saying that whilst He, the bridegroom is here it is not the time or place for fasting. Fasting after all was commonly associated with sorrow, sadness and mourning. Whilst Jesus was on earth it was a time for joy and celebration. When He has left them then it would be appropriate to fast.

He then proceeds, through the use of two parables to explain why the old way of doing things is incompatible with the new. Jesus was here to bring the new, not to unite with the old. Christianity is not patched onto the old cloth of Judaism. Nor is the new wine of Christ poured into the old wineskins of Judaism. It is something entirely new and superior. This is why we are not obliged to follow the Jewish feasts for example. They served God's purpose at that time and for those people, but now all things are fulfilled in Christ. We look to Him and not to what preceded Him. Both parables, the sewing of a new patch on an old garment and the pouring of new wine into old wineskins highlight this.

It's a useful reminder to us today. There are some denominations that call upon believers to follow the ancient practices of Judaism. Some teach for example that we ought to still keep the Jewish feasts. This is the teaching of the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also known as the church of God. As a Christians you are of course at liberty to keep the feasts if you wish. If you want to mark them on your calendar and observe them its okay to do so. But they are not required, and they do not in any way add to your salvation.

Also it is becoming common today to suggest we can mix and match religious practices. That we can take the "best" from one faith or religion and add it to another. In this way we could make a faith that is "acceptable" to all. This is known as syncretism. So, in Korea for example I see this idea reflected in the belief that you can be a follower of Christ but still sometimes visit the local shaman or mudang. Or that it's just harmless fun to go to fortune tellers or tarot card readers. I hope you realise how incompatible these things are with following Christ. The Christian faith is exclusive in character; it will not accept any other faith or practice as its equal or its superior. It is Jesus

Christ, and Him alone.

Today we move on to the fourth of the controversy stories. The issues over the Sabbath.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let us pray.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 몇이 주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상한 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율법주의적 경향은 매우 다른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 혼한 관행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는 것을 압니다. 금식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음식과 음료를 삼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식은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 육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 70 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뜻을 더 잘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사적일 수도 있고 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공)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외부의 적에 의해 위협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경우 제사장은 백성에게 금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금식의 경우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일 년에 단 한 번만 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속죄일(욥 키푸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절기 중 가장 엄숙한 성일이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정교한 의식을 행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거룩한 날을 25 시간 동안의 금식과 집중적인 기도로 지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속죄일과 관련된 금식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언급된 금식의 유형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일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습관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많은 인공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지 관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금식의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혼을 고려해 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잔치와 축하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금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신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동안은 금식할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금식은 일반적으로 슬픔, 슬픔, 애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기쁨과 축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떠나실 때 금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기존 방식이 새로운 방식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옛 것과 연합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가져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오래된 천에 패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는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고 우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와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섬겼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보다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비유, 즉 현 옷에 새 형질을 꿰매는 것과 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비유 모두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알림입니다. 신자들에게 유대교의 고대 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일부 교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알려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절기를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관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구원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관습을 혼합하고 일치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이나 종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다른 종교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가끔 현지 무당이나 무당을 방문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반영된 것을 봅니다. 또는 점쟁이나 타로 카드 관독기에 가는 것은 무해한 재미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얼마나 양립할 수 없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격이 배타적입니다. 다른 믿음이나 실천을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논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

### **23 Now it happened that He went through the grainfields on the Sabbath; and as they went His disciples began to pluck the heads of grain.**

We pick up the story here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walking through some fields of grain. This was most probably either wheat or barley. As they made their way through the fields some of the disciples were picking off, and we assume eating the heads of the grain. It was a Sabbath, a Saturday. That is vitally important in this story. Today in much of the world the day we set aside as our "day of rest" is a Sunday. For many people it's just a normal working day.

I am old enough to remember when Sunday really was a day of rest for most people in the UK. Shops, restaurants and businesses were closed. I can also remember the debates politicians had over lifting Sunday trading laws. A few wanted to maintain the prohibitions, the majority wanted them lifted. Those in favour of allowing shops and businesses to open won the debate. Today Sunday in the UK is not very different to every other day of the week. The day of rest for many has been lost.

It's not like this in Israel. The Sabbath is strictly maintained, it's something they take very seriously. Jews have always had two observances that have defined them; circumcision and the Sabbath. The Fourth Commandment, the longest of the Ten Commandments explains God's expectations for the Sabbath. (Exodus 20; Deuteronomy 5). God commands the Jews to abstain from every kind of labour since God himself had rested on the seventh day of creation.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God chose Israel from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and instituted the Sabbath as an eternal sign and blessing of Israel's unique status.

So, had it been any other day of the week what the disciples were doing would not have caused a problem or raised an eyebrow. Even taking and eating someone else's grain was not a problem. Today we would not allow anyone to come onto our property and to take and eat what belonged to us. We put up fences and signs and have guard dogs to protect what's ours. However it was not unlawful in Israel to go into your neighbour's field and to pick and eat the grain. This was permitted in consideration of the poor and needy. They were far more charitable than many of us are today. You were permitted to pick and eat but not to cut the grain with a sickle. You were also not allowed to put what you picked into a container to take it away (Deut 23:24-25). So what was so wrong with what the Lord's disciples were doing? Let's read on and find out.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곡식 밭을 걷고 있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밀이나 보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판을 지나갈 때 몇몇 제자들이 이삭을

죽고 있었고 우리는 이삭을 먹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토요일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안식일”로 정한 날은 일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평범한 근무일입니다. 나는 일요일이 실제로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휴식의 날이었던 것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늙었습니다. 상점, 레스토랑 및 비즈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또한 정치인들이 일요일 거래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수는 금지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대다수는 금지를 해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상점과 기업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토론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일요일은 다른 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의 날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엄격하게 유지되며, 이는 그들이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을 정의하는 두 가지 준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할레와 안식일. 십계명 중 가장 긴 계명인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고유한 지위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자 축복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다른 요일이었다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곡식을 가져가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나 우리 소유지에 와서 우리 소유를 취하여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울타리와 표지판을 세우고 우리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견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웃 밭에 가서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선적이었습니다.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은 허락받았지만 낫으로 곡식을 베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탄 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신 23:24-25).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에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계속 읽고 알아보시다.

## **24 And the Pharisees said to Him, “Look, why do they do what is not lawful on the Sabbath?”**

The problem was that the disciples were breaking some of the Sabbath prohibitions. Before I say some negative things about the Pharisees let me first say something more positive.

The reason, or the original intent of the Sabbath laws were to keep the Sabbath special and holy. The laws were intended as a fence that instructed people on what was and wasn't permissible on the Sabbath.

Let me give you an illustration. I know many of you enjoy hiking and getting out into the mountains. We are close to the beautiful Suri Mountain. Now Suri Mountain is a special area and is protected by park rangers. These men and women maintain the area and impose rule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you cannot ride a motorbike in the park, make fires, smoke cigarettes, fly drones, drop litter or camp in undesignated areas. These regulations are in place to protect the park and to allow us to enjoy it without destroying it. It could however get to a point when the laws and regulations stopped us from enjoying the mountain and benefiting from its beauty. Imagine if only a few walking trails were open. What about if you were limited to just a one hour visit. What about if you had to pay 50,000 won per visit. Then we would say the laws had spoilt what was there for us to enjoy.

This is what the Pharisees had done to the Sabbath. The Sabbath was a gift from God. Moses had quite deliberately not given many specifics about how the day was to be marked. Basically he had told the people to observe the day by doing NO work (Ex 20:10). Further to this the people were told not to kindle a fire for cooking (Ex. 35:3), gather fuel (Num.15:32), carry burdens (Jer. 17:21),

or transact business (Neh. 10:31; 13:15, 19).

However by Jesus day the Pharisees had added a huge list of things that according to their man-made tradition were not to be done on the Sabbath.

문제는 제자들이 안식일의 금기 사항 중 일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안식일 법의 원래 의도는 안식일을 특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율타리로 의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킹과 산으로 나가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수리산에 가깝습니다. 이제 수리산은 공원 관리인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지역을 유지하고 규칙과 규정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드론을 날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원을 보호하고 파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이 우리가 산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을 막는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산책로만 열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문 시간이 1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 방문에 50,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법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망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날이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 그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출 20:10). 이에 더하여 백성들은 요리를 위해 불을 피우거나(출 35:3), 연료를 모으거나(민 15:32) 짐을 나르거나(렘 17:21) 장사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느 10: 31; 13:15, 19). 그러나 예수의 날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인공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엄청난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This list included 39 categories of things that you were not allowed to do. The disciples were guilty, according to the Pharisees of **reaping, threshing, and winnowing** none of which could be done on the Sabbath.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Surely the Pharisees were not so petty and precise about maintaining these laws. Let me assure you that they were. Let me share with you some applications of the law which neatly illustrates just how petty and silly the laws had become. Rabbis taught that on the Sabbath you could not carry something in either hand, across your chest or on your shoulders. However you could carry something on the back of your hand, with your foot, with your elbow or very bizarrely in your ear. Or what about this? On the Sabbath, you were forbidden to tie a knot. The exception to this was if you were a woman. Women were allowed to tie a knot in their girdle. Now imagine if you wanted a drink of water and had to use the well. You could not tie a rope to a bucket to lower it down into well. But you could ask a woman to use her girdle to tie to the bucket.

As you can probably imagine this huge list of do's and don'ts had made the Sabbath a crushing burden on the people. It was symbolic of the religious bondage that had captured the nation. Let's read on.

이 목록에는 해서는 안 되는 39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따르면 제자들은 안식일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추수하고 타작하고 체하는 일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확실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 그렇게 사소하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게 되었는지를 깔끔하게 보여주는 법의 몇 가지 적용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에 어떤 것을 손에 들고 가슴에 메거나 어깨에 메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손등으로, 발로, 팔꿈치로 또는 매우 기이하게 귀에 무언가를 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매듭을 묶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예외였다. 여성들은 거들에 매듭을 묶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물을 마시고 싶어 우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밧줄을 양동이에 묶어 우물 속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거들을 사용하여 양동이에 묶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이 거대한 목록을 상상할 수 있듯이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사로잡은 종교적 속박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25 But He said to them,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in need and hungry, he and those with him: 26 how he went into the house of God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and ate the showbread, which is not lawful to eat except for the priests, and also gave some to those who were with him?”**

Jesus here gives a masterful answer to the Pharisees. You can read the same account in Matthews gospel (chapter 12). Matthew was writing for Greek speaking Jews. So Matthew tells us that Jesus gave three arguments to defend what His disciples were doing. He told them what David did, what the priests did and what the prophet Hosea said. Mark however as I said back in the introduction to this series was writing for Roman Gentile believers. They were not interested in Jewish priests or prophets. They were however fascinated by King David who was renowned as a great hero and king. This is why Mark focuses just on what David did.

He asks his readers to think back to an episode in the life of David (1 Sam 21:1-6). It is during the time when David is fleeing from King Saul who wishes to kill him. David enters the temple at Nob and speaks with Ahimelech the priest. He is looking for bread. The priest tells him the only bread available is the holy showbread. These 12 loaves were placed in the tabernacle each Sabbath. They would stay there for a week until the next Sabbath when they would be replaced. Very importantly this bread was set aside, or dedicated to God and was only to be eaten by the priests. However because David was hungry and in need the priest gave David the bread and he shared it with his men.

What's Jesus point here? Simply this, if a hungry king (David) and his men were permitted to eat the holy bread from the tabernacle then it perfectly okay for the Lord of the Sabbath to allow His men to eat grain from the fields. Furthermore, David broke a law that was given by God through Moses. He was permitted to do this because he and his men were in dire need. This is why scripture at no point condemns David for this action. Jesus' disciples only broke a man made tradition.

The problem the Pharisees had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y were unable to distinguish which laws were more important. People who love rules and regulations often fall into this trap. Keeping the rule becomes everything to them. The question the Pharisees had to answer was this, is it more important to maintain the law or to offer help to those in need?

They would argue it is more important to keep the law. Jesus would argue that it is far better to help others. Let us see how this episode concludes.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훌륭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12 장)에서도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변호하기 위해 세 가지 논증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이 한 일, 제사장들이 한 일, 선지자 호세아가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Mark 는 이 시리즈의 서문에서 다시 말했듯이 로마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

대한 영웅이자 왕으로 알려진 다윗 왕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다윗이 한 일에만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다윗의 일생을 회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삼상 21:1-6).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날 때입니다. 다윗은 뭍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야기합니다. 그는 빵을 찾고 있습니다. 사제는 그에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은 거룩한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12 개의 빵은 안식일마다 성막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교체될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빵을 따로 따로 떼어 하나님께 바쳐 제사장들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가 고프고 궁핍하므로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어서 그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만일 굶주린 왕(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막에서 거룩한 떡을 먹도록 허용된다면, 안식일의 주인은 그의 부하들이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도록 허용하는 것이 완전히 괜찮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법이 더 중요한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규칙과 규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야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봅시다.

**27 And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28 Therefore the Son of Man is also Lord of the Sabbath.”**

I am sure you are familiar with a straightjacket. They are most commonly used to restrain and control violent mentally ill patients. Basically the patients arms are strapped down tightly. This prevents, or greatly reduces the potential for the patient to hurt either themselves or others. Obviously such a jacket is uncomfortable and restrictive. It doesn't allow for much mobility. I use this illustration here because in effect the Pharisees had made the Sabbath a straightjacket that tightly bound the Jews. Instead of being the gift or blessing that God intended their regulations had ruined it. Their restrictions were so tight and binding that there was no wriggle room to help people or provide welfare when needed.

We often take our day of rest for granted, often we do not use it to rest at all instead we fill it with other activities. But what a gift it is to take a break from our work. How valuable it is to rest and recharge our batteries for the work to come. Imagine how hard and demanding life was in the ancient world. They had none of the time or labour saving devices we have today. Cooking and preparing food took a long time. Washing clothes was a time consuming chore. God of course recognised this and this is why He modelled for us the example of the working week. Six days of work followed by a day of rest. God didn't need to rest from His work, He was not tired from the efforts of creation. But He gave us this pattern to follow. This is why Jesus tells us that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After all human beings were created on day six the day before the Sabbath. Or more simply that human being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Sabbath. This is not the Lord Jesus dismissing the importance of the Sabbath. Rather He is putting it in its proper perspective. People before the day.

This episode concludes with Jesus identifying to His hearers who He is. In the Old Testament the

Sabbath was known as the "Lord's Day." We still sometimes use that expression today. Proclaiming Himself to be "Lord of the Sabbath," Jesus confirmed that because of who He was He was in the position of determining what could or could not be done on the Sabbath.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fifth and final controversy story.

스트레이트 재킷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정신병 환자를 제지하고 통제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팔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크게 줄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재킷은 불편하고 제한적입니다. 많은 이동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단단히 묶는 안식일을 겉옷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규정이 그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의 제한은 너무 딱딱하고 구속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돕거나 필요할 때 복지를 제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쉬는 날을 당연하게 여기고, 쉬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다른 활동으로 채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앞으로의 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고대 세계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힘겨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노동력 절약 장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빨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셨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주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6일간의 일과 하루의 휴식. 하나님은 그의 일을 쉬실 필요가 없었고, 창조의 수고에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이 패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또는 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적절한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루 전의 사람들.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주의 날"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뜻으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논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 **1 People before traditions**

The Pharisees were guilty of putting their traditions and rules ahead of the needs of the people. Let us be charitable and say that their initial concern had bee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importance of the Sabbath. They rightly saw it as something given by God and therefore of value. However in their zeal that had lost all sense of priority. The traditions and the rules had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original intent and purpose for the Sabbath. Instead of thinking of people first the day itself had taken priority.

Sometimes we can fall into this same pattern in church. For example there are some churches that are reluctant to modernise and update things. They are still using archaic words, traditional worship times, old fashioned service orders, and ancient hymns that are old and do not resonate with people. Their argument that this is the way we have always done things is just what the Pharisees would

say. I'd argue that the church exists to serve God's people. The style and wording of the service should resonate with contemporary people.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throw out all order and tradition. Or that we shed or minimise essential items such as bible reading, prayer and an exposition of God's Word. I certainly don't think we should throw out all the old in favour of things that tickle the ears and entertain. But I am suggesting that we are at least willing to challenge the old traditions and think about how we might better serve God's people today. Our rule of thumb should be, people before traditions.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필요보다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앞세운 죄를 범했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그들의 초기 관심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따라서 가치 있는 것으로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 우선 순위의 모든 감각을 잃었다. 안식일의 원래 의도와 목적보다 전통과 규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그날 그 자체가 우선이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화와 업데이트를 꺼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래되고 사람들에게 반향을주지 않는 고어, 전통적인 예배 시간, 구식 예식, 고대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식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비스의 스타일과 문구는 현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질서와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 읽기, 기도, 하나님 말씀 해설과 같은 필수 항목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합니다. 나는 우리가 귀를 간지럽히고 즐겁게 하는 것에 찬성하여 모든 오래된 것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적어도 기꺼이 오래된 전통에 도전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경험 법칙은 전통보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Celebrating the Sabbath**

Isn't a day of rest a wonderful blessing. How good it is to wake up and not have to rush off to the stresses and strains of work. As I touched on before for many people Sunday is hardly a day of rest and relaxation. Many people are as busy on a Sunday as they are through the working week. God knows us intimately, He knows what we need and what is good for us. What all of us need is a time to rest and recuperate. But of course there is more to the gift of the Sabbath than simply a day of no work. The Bible gives us three purposes of the Sabbath.

**1 To celebrate God's provision.** The Sabbath was a day to celebrate God's provision generally and personally. It was a day of rest to reflect on what God had done.

**2 To enjoy God's presence.** The Sabbath is intended for you to stop your normal routine of the week. You are to slow down and enjoy God's presence without trying to accomplish everything possible on that day.

**3 To remember God's promises.** It is a day to be reminded that God cares about you.

So the Sabbath should be a day for us to spend thinking about how God has provided for us. It is also a day to delight in spending time in God's presence. Obviously this is something we do in church but is not exclusive to church. Often when I ride my bike on Sunday afternoons in the countryside I enjoy God's presence in the natural beauty around me. You can equally enjoy and be grateful to God as you spend time with your families after church. It is also a day to remember that God has made promises to us. We are precious and valuable in His sight. He loves and cares deeply for His children. We can remember that throughout the week but particularly on a Sunday.

Now of course I do not want to be like the Pharisees in dictating how you spend your Sunday. But

all of us would benefit I think from being more deliberate and focused on Sundays. I will be honest with you and say that I do not really want to spend my precious Sabbath rest in meetings. So why not spend some time thinking about how you spend your Sabbath rest. Are there things you could change or alter so that you better celebrated this wonderful gift from God.

쉬는 날은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일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언급했듯이 일요일은 휴식과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만큼이나 일요일에도 바쁘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물론 안식일이라는 선물에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의 세 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 1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상하는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 2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안식일은 당신이 한 주의 일상적인 일과를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에 가능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 3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보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서 일요일 오후에 자전거를 탈 때 종종 나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깁니다.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똑같이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 보시기에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주일 내내 기억할 수 있지만 특히 일요일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바리새인처럼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지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일요일에 더 신중하고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게 말할 것이며 나의 소중한 안식일을 집회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휴식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더 잘 기념하기 위해 바꾸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